

## 총선거에 투표한 날 상상 일기 쓰기

월	일	요일
	반	번
이름		

- ◆ 정부 수립 방법에 대한 혼란 속에서 1948년 5월 10일, 선거가 가능한 남한에서만 총선거를 하게 되었습니다. 처음으로 직접 국회의원을 뽑는 민주 선거에 참여한 국민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? 글자를 읽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나라에서는 어떤 방법을 취했을까요? 1948년으로 떠나, 총선거에 투표한 날을 주제로 일기를 써 봅시다.

1948년 5월 10일 월요일

제목: \_\_\_\_\_

\_\_\_\_\_

\_\_\_\_\_

\_\_\_\_\_

\_\_\_\_\_

\_\_\_\_\_

\_\_\_\_\_

\_\_\_\_\_

\_\_\_\_\_

\_\_\_\_\_

### 같이놀기 tip

친구들의 일기를 함께 보며 다양한 입장에서 바라본 총선거의 모습을 살펴봅시다.

## 총선거에 투표한 날 상상 일기 쓰기

월	일	요일
	반	번
이름		

- ◆ 정부 수립 방법에 대한 혼란 속에서 1948년 5월 10일, 선거가 가능한 남한에서만 총선거를 하게 되었습니다. 처음으로 직접 국회의원을 뽑는 민주 선거에 참여한 국민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? 글자를 읽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나라에서는 어떤 방법을 취했을까요? 1948년으로 떠나, 총선거에 투표한 날을 주제로 일기를 써 봅시다.

1948년 5월 10일 월요일

제목: 내가 왕을 뽑다니

아직도 심장이 쿵쿵거린다. 내가 왕을 뽑다니!

이제부터는 왕이 아니라 대통령이라고 부른다.

일어나자마자 태극기를 게양하고 깨끗한 흰 옷을

입고 투표장으로 갔다.

글자도 읽을 줄 모르지만, 다행히 이름 밑에

막대가 그어져 있어 누군지 알아볼 수 있었다.

신기한 경험이었다.

### 같이놀기 tip

친구들의 일기를 함께 보며 다양한 입장에서 바라본 총선거의 모습을 살펴봅시다.